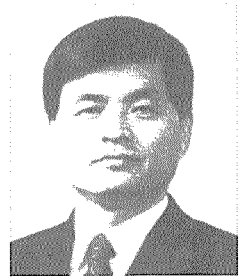


# 한일 FTA와 전자산업



본회 전자산업연구소장  
윤 동 훈 경제학박사

## 1 대내외 환경

.....

한국경제가 크게 변하고 있다. 한국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호를 둘러싼 환경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방 개혁이 가속화되고,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어 가는 데다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은 중국을 세계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은 사회주의 동유럽이 소멸된 후 유일무이한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중국은 이제 동쪽에서 강대국으로 지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동서양 2대 강국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많은 전자제품이 중국이 없다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정도가 되고 말았다. 세계가 어느새 중국의존도가 위협 수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바로 이웃에 있어 장단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중국과 유사한 문화와 근세 일본에 대항한 역사가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공장들이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일본이 투자를 하였지만 기술, 자본이전에 소극적이어서 중국인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한국공장들은 과감하게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 이전도 상당히 시원스럽게 행해지고 있어 중국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이 다자간 협상에다 지역구도가 동시에 성행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으로 개별국가간, 개별지역간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지리적 인접성이나 산업간 보완성을 위해 지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협력시스템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이 가장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65개 정도의 FTA가 체결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까지 동아시아국가들이 FTA에 거의 참가하지 않았으나, 금년 들어 한국만이 FTA를 체결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해 발효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시아지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시아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뒤질세라 각종 FTA 스케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세계 각국과 FTA 체결을 현안으로 올려놓고 있다.

국내 경제도 새로운 지경을 밟고 있다. 불투명하던 경영과 회계가 금융시장의 개방에 외국인 투자 증가로 투명하게 바뀌고 있으며, 경제규모의 확대는 구태의연한 방식보다는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준의 품질과 성능으로는 글로벌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글로벌 인재를 스카웃하고 글로벌 문화를 소화 흡수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시장을 뚫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로컬 체질이 글로벌 표준으로 전환된 것이다. 한국경제호가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IMF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비전을 만드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무역에서 한국이 늘 수지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전 국내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일본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이제는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자본이 없던 성장 초기에 가장 손쉬운 것이 일본의 선진 기술이 농축된 부품, 소재를 가져다가 단순 조립하고, 거기에서 마진을 붙이는 무역패턴이었다.

고도 수출은 국부를 증강시키는 한편 일본에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을 증가시켰다. 이른바 수입유발 수출형구조가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이다. 이 구조는 일본에게 바둑에서의 꽃놀이패를 즐기게 만들어 준 것이다.

한국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일본 제품을 이겨 잘 팔리게 되면, 일본 원자재가 그만큼 한국에 많이 팔리게 될 것이고, 일본 제품이 많이 팔리면 일본은 완제품과 부품의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양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은 1998년 중 1,323억 달러로 전년보다 2.8% 감소하였고, 수입은 933억 달러로 전년보다 35.5% 감소하였다. IMF위기로 원화가 대폭 절하되면서 수출시장에는 유리하고, 수입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390억 달러에 달하였다. 대일 수출은 122억 달러로 전년보다 17.1% 감소하였고, 수입은 168억 달러로 39.7% 감소하였다. 대일 수지는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999년 중 한국의 수출은 1,437억 달러로 8.6%

증가하였고, 수입은 1,198억 달러로 28.4% 증가하였다. 대일 수출은 159억 달러로 29.6% 증가하였고, 수입은 241억 달러로 43.4% 증가하였다. 대일 수지 적자는 8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0년 중 한국의 수출은 1,723억 달러로 19.9% 증가하였고, 수입은 1,605억 달러로 무려 34.0%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1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대일 수출은 205억 달러로 29.0% 증가하였고, 수입은 318억 달러로 31.8% 증가하였다. 대일 수지는 113억 달러 적자로 확대되었다.

2001년 중 한국의 수출은 1,504억 달러로 전년보다 12.7% 감소하였고, 수입은 1,411억 달러로 12.1% 감소하였다. 무역 흑자는 93억 달러였다. 대일 수출은 165억 달러로 19.3% 감소하였고, 수입은 266억 달러로 16.3% 감소하였다. 대일 수지는 101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2002년에는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났고, 금년에는 사상 최고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중 한국의 수출은 1,624억 달러로 7.9% 증가하였고, 수입은 1,521억 달러로 7.7% 감소하였다.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2002년 중 대일 수출은 151억 달러로 8.4%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298억 달러로 12.0% 증가하였다. 대일적자가 147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3년에는 대일적자가 약 200억 달러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대일 수지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

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12.0%로 증가했지만, 일본으로 가는 수출은 마이너스 8.4%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가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수출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내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품권을 국민에게 나누어줘도 소비자들은 이 상품권을 저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도 크게 내리고 있다. 공급자들도 판매 저조를 견디지 못하고 가격 파괴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소득이 과거와 같이 크게 오르지 못하자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가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가형은 중국산, 동남아산이 거의 독차지 하고 있다. 중국산의 일본시장점유율이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만 해도,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1년 중 4.9%에서 2002년 중 4.6%로

〈총 수출입 및 대일 수출입 추이〉

(단위 : 억달러,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한국	수출	1,323(-2.8)	1,437(8.6)	1,723(19.9)	1,504(-12.7)	1,624(7.9)
	수입	933(-35.5)	1,198(28.4)	1,605(34.0)	1,411(-12.1)	1,521(7.7)
	수지	390	239	118	93	103
대일	수출	122(-17.1)	159(29.6)	205(29.0)	165(-19.3)	151(-8.4)
	수입	168(-39.7)	241(43.4)	318(31.8)	266(-16.3)	298(12.0)
	수지	-46	-82	-113	-101	-147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같은 기간 16.6%에서 18.3%로 증가한 것이다.

### 3 일본과 전자산업교역

한국은 일본과의 전자교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대일 전자산업의 무역적자는 1998년 중 25억 달러에서 2002년에 46억 달러로 증가했다. 금년 상반기에 대일 전자적자가 27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어, 금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중 전자산업의 대일 적자는 37.4억 달러에서 1999년 중 IMF의 위기로 말미암아 32.9억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0년 중 36.0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다. 2001년 중 34.7억 달러로 다시 소폭 감소하였고, 2002년 중 46.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자산업의 대일 수출입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전자기기의 수출입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전체 대일 수출입이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주요 대일 수출 전자기기는 반도체, 컴퓨터 입출력장치, 디지털카메라, TV, 가정용 전기기기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전자기기는 반도체, TV, 인쇄회로, LCD, 디지털카메라, 2차전지 등을 들 수 있다.

1998년 중 한국의 전자 수출은 382억 달러로 전년보다 6.6% 감소하였고, 수입은 217억 달러로 24.0% 감소하였다. 무역수지는 165억 달러

흑자다. 대일 전자 수출은 30억 달러로 전년보다 21.1% 감소하였고, 수입은 55억 달러로 32.1% 감소하였다. 대일 적자는 25억 달러에 달하였다.

1999년 중 전자 수출은 515억 달러로 34.6% 증가하였고, 수입은 317억 달러로 46.2% 증가하였다. 무역 수지는 1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대일 전자 수출은 52억 달러로 69.2% 증가하였고, 수입은 85억 달러로 52.8% 증가하였다. 대일 적자는 3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2000년 중 전자 수출은 666억 달러로 29.3% 증가하였고, 수입은 431억 달러로 36.0% 증가하였다. 무역 흑자는 234억 달러에 달하였다. 대일 전자 수출은 73억 달러로 41.5% 증가하였고, 수입은 109억 달러로 28.9% 증가하였다. 대일 적자는 36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0년에는 대일 전자 수입 증가율이 전체 전자 수입증가율보다 낮은 편이다.

2001년 중 전자 수출은 517억 달러로 전년보다 22.3% 감소하였고, 수입은 346억 달러로 19.7% 감소하였다. 무역 흑자는 171억 달러에 달하였다. 대일 전자 수출은 53억 달러로 26.9% 감소하였고, 수입은 88억 달러로 9.2% 감소하였다. 대일 적자는 35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2년 중 전자 수출은 611억 달러로 18.1% 증가하였고, 수입은 378억 달러로 7.3% 증가하였다. 무역 흑자는 233억 달러로 늘어났다. 대일 전자 수출은 53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하고, 수입은 99억 달러로 12.5% 증가하였다. 대일 적자는 4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기기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대일 전자수입도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전자기기의 수출이 13.6%에 증가하였고, 대일 전자수입도 28.6% 증가한 것이다.

〈전체 전자 수출입 및 대일 전자 수출입 추이〉

(단위:억달러,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한국	수출	382(-6.6)	515(34.6)	666(29.3)	517(-22.3)	611(18.1)
	수입	217(-24.0)	317(46.2)	431(36.0)	346(-19.7)	378(7.3)
	수지	165	197	234	171	233
대일	수출	30(-21.1)	52(69.2)	73(41.5)	53(-26.9)	53(-)
	수입	55(-32.1)	85(52.8)	109(28.9)	88(-9.2)	99(12.5)
	수지	-25	-33	-36	-35	-46

4 대일부품의존도 하락

우리나라의 전체 전자 수출과 대일 전자부품 수입과의 관계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 상반기에 10% 이하로 떨어졌다.

1990년만 하더라도 전자수출이 172억 달러이고, 대일 전자부품 수입이 28.9억 달러로 전자수출에 대한 대일 부품수입의 비율은 16.8%에 달하였다. 이 비율이 1995년에 11.6%로 하락했고, 2000년 중 10.5%, 2001년 중 10.4%, 2002년에 9.9%로 낮아진 것이다.

부품 수입 총액에서 대일 부품수입의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1990년 중 부품 수입총액은 55억 달러였고, 이 가운데 대일 부품수입액은 28.9억 달러로 부품수입총액에 대한 대일부품수입은 52%에 달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절반 이상

을 수입한 것이다. 1995년 중 이 비율이 41.4%로 낮아졌고, 2000년 중 27.8%, 2001년 중 27.4%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2년 중 40.0%로 급등하였다. 금년 상반기에는 26.3%로 다시 낮아졌다.

이처럼 전자부품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첫째, 수출 주력 품목들이 국산화율이 높거나 대일 의존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휴대폰, 디지털 TV, 대형 백색가전, 모니터, 웹톱박스 등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진 품목들이다.

둘째, 국내 전자부품업계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대일 전자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에서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일 전자부품의 수출은 1990년 중 13.8억 달러에서 1995년 중 31억 달러, 2000년 중 3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2001년 중 23억 달러로 전년대비 3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2년 중 29억 달러로 27%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다.

금년 상반기 중, 대일 반도체 수출이 6.4% 증가한 83억 달러에 달하였고, 무선통신기기부품이 14억 달러로 60.2%, PCB가 4억 달러로 19%, 축전지가 3억 달러로 49%, 평판디스플레이가 2억 달러로 92% 각각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자완제품의 세계 수출은 호조를 보이

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기 침체를 반영해 대일 완제품의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일 완제품 수출은 1990년 중 8.8억 달러에서 1995년 중 18억 달러, 2000년 중 3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 30억 달러로 전년보다 19% 감소되었고, 이어 2002년에도 24억 달러로 20% 감소되었다. 금년 상반기에도 11.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한 것이다.

대일 완제품 수입은 1990년 중 22억 달러에서 1995년 중 38.4억 달러, 2000년 중 38.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 중 34억 달러로 전년보다 12% 감소되었다. 2002년에는 38.9억 달러로 3.7%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21.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8% 증가한 것이다.

## 5 다변화 해제후 일본 재공세 :::::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었던 수입선다변화정책이 폐지된 이후 일본의 가전제품이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재탈환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에서 14개 전자제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998년 중 8.7%에서 1999년에 27.0%로, 2000년에 42.9%로, 2002년에 41.7%로 증가했다. 전자제품의 수입이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품목에서 14개 전자제품의 대일 수입 규모도 1998년 중 5천6백만 달러에서 1999년 중 1억1천6백만 달러로, 2002년 중 3억 1천7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전자기업들은 품질, A/S 등 마케팅 전략과 공격적으로 바꾸고, 2002년 월드컵 등 특수를 활용한 수요 확대방안이 꽤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 전자제품이 국내시장을 보다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고급 제품일수록 외산 선호가 두드러진다.

기술력이나 브랜드에서 비교적 큰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대형 프로젝션TV 등에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25인치 이상 칼라TV의 경우 1998년 중 일본에서 47만 달러로 전체 칼라TV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불과하였지만, 2002년 중 3천9백만 달러로 비중도 51%로 급증하였다.

비디오카메라류는 1998년 중 대일 수입규모가 81만 달러, 전체 수입에서 대일 비중이 53%에서, 2002년 중 2억2천만 달러로 그 비중도 85%로 증가한 것이다. 휴대용 무선전화기는 1998년 중 대일 수입이 3만달러, 비중 0.1%에서 2002년 중 1천5백만 달러, 비중 10%로 늘어난 것이다.

## 6 전자부품소재의 현주소 :::::

우리나라의 전자기기의 생산규모와 제조기술

은 세계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부품이나 소재산업은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세계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메모리 반도체와 LCD는 연간 수출 규모가 260억 달러 정도이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설비투자는 연간 약 60억 달러 이상이다. 반도체와 LCD의 생산장비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핵심 장비의 수입 의존은 3분의 2정도에 달한다.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스에 관한 기술도 정부와 관련업체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개발에 활성화되는 듯 하였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스는 PC, 디지털전자기기 등의 필수 부품이다.

2차전지에 사용되는 세퍼레이터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모두 수입되고 있다. 휴대폰산업이 성장할수록 2차전지가 소요되고, 세퍼레이터의 수입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0년 불황 속에서도 제조업만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대형 전자메이커들과 전자부품업체들은 세계전자시장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산요의 태양전지, 샤프의 카메라폰 등 일본은 응용기술의 천재답게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개막하고 있다.

하드디스크드라이브용 자기헤드시장을 휩쓸고 있고, 집적회로 관련부품, 카메라폰용 전자부품 등 세계전자부품시장은 일본이 없으면 가동되지

못할 지경이다. 한국에서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금형산업에서도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트메이커와 중소기업간 기술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세트메이커는 가격 인하와 기술 가로채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중소기업이 지적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은 신뢰성이 없고, 중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도 열위에 있으며, 정보 공유도 믿을 수 없다고 대형 메이커가 주장하고 있다. 국내전자 부품시장에서 양 축이 균형점을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효과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오픈된 마음으로 상호간 윈윈할 수 있으며, 과실을 상대방에게 배분하는 신호가 교차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에 다시금 힘을 쏟아야할 시점이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우리의 기술력이 대폭 증강되었고, 가용자금력도 풍부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 7 전자산업 판도

FTA가 한국과 일본간에 체결된다면, 국내에서 대기업에 호재, 중소기업업체에 악재로 보이고, 일본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

하다. 일반적으로 일본산 원자재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형 전자메이커들은 곧바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거래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양국간 전자산업의 교역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특히, 단기적으로 한일간 FTA의 체결은 중소기업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이다. 대체로 품질과 성능에서 열위를 나타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부품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동안 의지해오던 가격격차가 허물어지면 존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부 기술과 품질을 확보한 중소기업체들에서 한일 FTA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술력과 마케팅, 세계적 브랜드 면에서 열위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일부 전자부품은 현행 관세율 8% 수준에서만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세가 철폐된다면 품질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산이 보다 선호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신뢰성 있고 우수한 품질인 일본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됨으로서 일본산 전자부품의 구입이 러쉬를 이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가전제품과 정보통신기기 등 일본과 기술 격차가 크지 아니한 품목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전자 품목의 경우 한일 FTA체결이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일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전자기기 수입이 무관세이고, 한국이

8%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단기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전자기기를 수출하는 여건이 크게 호전되는 셈이다. 일본산 전자기기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향상된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국산 전자기기의 대일 수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원산지 증명, 통관, 기존 기업간 거래 고수의 상관행 등을 FTA 체결되기 전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높다.

중장기적인 면에서, 한일 양국간 산업협력이 증진되고 경쟁효과에 의해 전자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기초 기술분야에서는 일본을 추월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상품과 양산이라는 측면에서의 생산기술, 생산공정, 적극적 시장개척 등에서 상당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게 되면, FTA에 의한 일본산 부품, 원자재의 가격 인하는 한국의 전자산업의 생산성을 올리게 될 것이다.

한일간 제휴와 합작 등이 현재보다 활발해져 일본의 자본과 기술 유입을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한국 전자기업들도 일본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구입 등 진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내 전자업체 총수는 1만여개로서, 한일 FTA에 대한 반응은 가지 가지라 할 수 있으나, 국내의 고용효과나 소득창출효과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익성 향상과 글로벌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간 FTA가 체결되기 전에 만반의 준비가 착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